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유럽에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은 믿음의 발전과정이다. 믿음은 시장의 탄생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믿음은 모든 시장 경제의 기본이 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대규모 상업 거래의 토대가 되었다. 유럽에서 경제 행위가 시작되던 시기에, 곧 상인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거나 유럽의 큰 강줄기를 따라 형성되었던 장터에서 서로 만나곤 했을 당시에는, 아직 사법 체계와 재판 절차, 제재 규정이 취약했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곳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복잡하고 위험하며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거래에서는 진정 상대방을 신뢰해야 했다. 상대방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방도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방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나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뢰로 인해 유럽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교역은 새로운 형태의 우애가 되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 상품의 양이 늘어났고 상업적, 사회문화적, 종교적 만남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예컨대 화폐, 담보, 은행이 존재했더라도 니콜로라는 사람이 미구엘이라는 사람을 신뢰했고 그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 덕분에 거래가 성사되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약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 이런 믿음이 파괴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점차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 구현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냈다. 유럽은 이런 새로운 믿음에 바탕을 두는 자본주의에 의해 재건되었다. 하지만 이는 근대 이전의 믿음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이 경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위기를 부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신뢰라는 인간관계와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무관한 금융 제도를 구축했던 데에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는 은행이라면 곤경에 처한 건실한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인간적인 신뢰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만남도 없이 그저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온 대출심사 결과 수치에만 의존하며, 이로써 비인간적인 방식이 되고 만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하며 그들의 취약성까지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와 금융 거래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 같은 거래는 비인간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차원에서 믿음을 다시 찾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모색이나 통치 체제도 진정 우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시문 (나)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란 단어다. 좋을 때 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십대처럼 성장해왔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대체로 같은 규모를 유지해왔다. 물론 지구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은 대체로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1인당 생산은 정체 상태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대에 와서 바뀌었다. 서기 1500년 재화와 용역의 지구 총생산은 약 2,050억 달러였는데, 오늘날 이 수치는 6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기 1500년 연간 1인당 총생산은 550달러였지만 오늘날 모든 남녀와 어린이가 1인당 연평균 8,800달러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왕자, 성직자, 농부 모두 인간의 생산은 일정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손자들도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경제적 정체의 큰 원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유는 근대 이전에는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러 은행—그리고 경제 전체—을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이 능력이 제한적이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제한된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이 한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재화를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으로 대체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은 우리의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한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에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근대 이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제시문 (다)

남산 밑 묵적골(墨積洞)에 살며 책 읽기만 즐겨하던 가난한 선비인 허생은, 어느 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을 듣고 집을 나간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중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여 길게 읊**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 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꿀, 유자 등 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열 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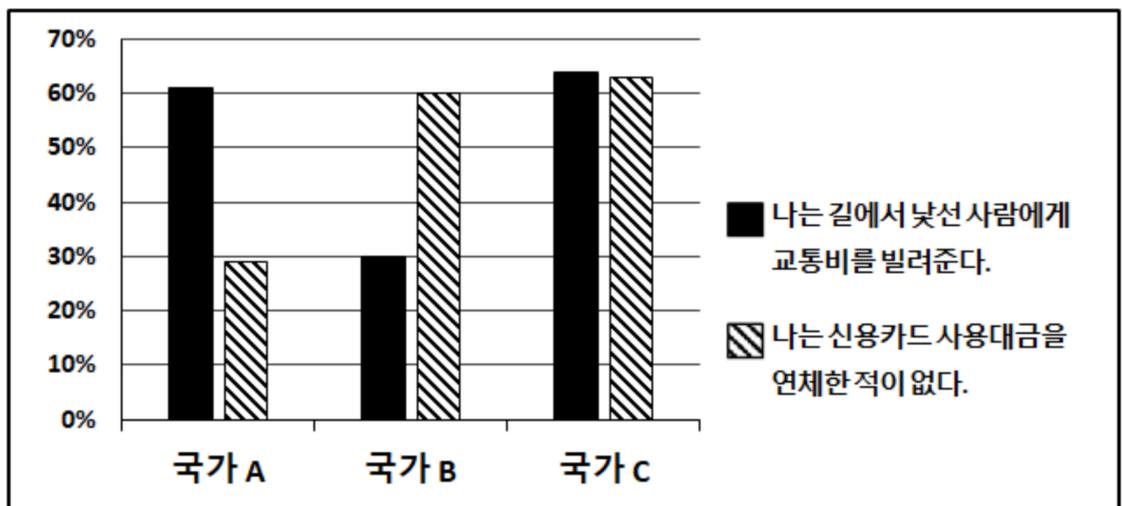
* 운중가: 조선 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

** 음: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제시문 (라)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아래 그래프는 가상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정도와 ‘신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다. 또한, 아래 표는 각 국가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 각 국가들의 ‘신뢰’의 정도, ‘신용’의 정도, 연간 경제 성장률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국가 A	국가 B	국가 C
연간 경제 성장률(%)	3.0	2.5	3.8

〈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제시문 (가)의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에 나타난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2018 인문 기출 해설

논제 분석

〈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신용과 신뢰를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나누어 (가)와 (나) 비교
2. 하나 선택
3. 1, 2를 통해 제시문 (다)의 양면적 평가

〈문제 2〉 제시문 (가)의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에 나타난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가)에 나타난 근대와 근대 이전의 신용과 신뢰 관계를 사용하여 A, B, C의 양상 설명
2. 연간 경제 성장률 차이 설명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제시문 독해 - 비교의 기준인 “신용’과 ‘신뢰’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

※ 제시문을 단지 ‘신용’과 ‘신뢰’로 볼 것이 아닌, ‘신용과 신뢰의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논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구분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가)의 근대 이전, 근대로 나누어 독해함이 좋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시문을 읽으셨다면, 제시문 (가)가 근대 이전과 근대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발견하셨어도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나누지 않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정리한 내용의 가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추후에 비교 표를 작성하실 때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시문 (가)와 (나)를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나누어 해설하겠습니다.

(가) - 신용과 신뢰 사이의 관계 (근대 이전)

주체 - 사람

양상 -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이 발생

배경 - 공통된 믿음(신앙/종교)이 존재

결과 - 유럽 공동체의 확대, 시장과 부의 생성...(긍정적 결과)

영향 요소 -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기에 악용될 수도 있음

(가)를 근대 이전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주체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굳이 더 구체적으로 잡자면 유럽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허나, 이걸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행위의 배경

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는 ‘신용과 신뢰 사이의 관계’와 연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시문에서 ‘신뢰와 신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 제대로 상품을 보낼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야말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주는 중요한 보증이었다.”

이 문장을 통해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라는 관계성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다음 문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상대편도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상대편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기에, 나도 상대편을 신뢰할 수 있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나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진술이 다음 문단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산이었다.”

즉, 이런 공통된 믿음은 인간관계의 자산이 되어 신뢰를 형성하고, 신용 거래를 이루어지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한 문장이 첫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신용이 시장과 부를 낳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시장과 부의 생성’이라고 적어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 결과’라고 써주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와 신용 간의 관계를 촉진시킬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내재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이를 인간적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굳이 이를 이야기하자면 신뢰가 신용을 만들어내는 걸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방해 요소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 요소 항목에 ‘악용될 수 있음’이라 적어줍니다.

근대 이전을 정리했으니, 이제 근대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가) - 신용과 신뢰의 관계 (근대)

주체 - 사람

배경 -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의 도래

양상 -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확대

결과 - 성장률 저하, 경제 위기 초래

주체는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굳이 더 특정하자면 ‘근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에서 주체는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대에는 근대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배경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입니다.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자본주의적 믿음은 더 이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자본주의적 믿음을 배경으로, 인간 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 없이 신용이 생성됩니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점차 확대되어 성장률을 낮추고 심지어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확대 되었다는 근대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양상 항목에는 ‘인간적 신뢰가 빠진 신용이 확대’라고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성장률 저하’와 ‘경제 위기 초래’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촉진할만한 요소인 자본주의적 믿음(은행과 금융 기관에 의해 구현되는)은 배경 항목에 정리가 되었고, 근대 이후의 새로운 신뢰와 신용의 관계를 방해할만한 요소는 굳이 잡자면 ‘인간 관계’인데, 이미 근대 이전에서 신나게 정리했고,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문 (가)의 정리 독해를 마치시면 됩니다.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지 않고 함께 적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정리한 내용들이 복잡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 - 신용과 신뢰 사이의 관계 (근대 이전)

주체 - 근대 이전의 사람들

배경 -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음

양상 - 신뢰가 없어서 신용 거래도 일어나지 않음

결과 - 경제의 정체

영향 요소 - 정체 -> 신뢰 X -> 신용 X -> 정체... 의 순환

제시문 (나)는 앞에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찾아내야 하는 제시문에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후술할 ‘신용과 신뢰의 관계’에서 성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혹은 생각해볼만한) 대목입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읽으신 뒤에 (나)에서의 근대 이전을 먼저 살펴봅시다. 역시나 주체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글에서 ‘신뢰’와 ‘신용’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근대 이전에는 신용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은 배경은 경제 정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리하기 이전에 앞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두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왕자, 성직자, 농부 모두 인간의 생산은 일정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의 손자들도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라는 부분이 뒤에 나올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과 연결됩니다. 이는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변형되어 등장합니다. 이 제시문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 던져주는 것은 아쉬웠는지 막판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용거래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성장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용과 신뢰의 관계’는 ‘신뢰가 신용 거래를 만든다’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의 신뢰는 (가)의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와는 다른, ‘성장에 대한 신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배경을 ‘성장에 대한 신뢰 결여’ 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양상은 ‘신뢰가 없어서 신용 거래도 거의 일어나지 않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경제 정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제시문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신용 거래가 있지 않았다. 신용 거래가 없으니 경제가 정체되었다. 경제가 정체되어서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뢰와 신용 거래, 경제 정체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나) - 신용과 신뢰의 관계 (근대)

주체 - 근대의 사람들

배경 -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시스템 등장

양상 - 성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신용 거래 활성화

결과 - 경제의 성장

영향 요소 - 신뢰 -> 신용 -> 경제 성장 -> 신뢰 -> 신용... 의 순환

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체는 근대의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나)의 근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근대에 이르러 은행—그리고 경제 전체—을 살아남게 하고 꽃피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다. 오로지 이 신뢰가 세계의 돈 대부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가 세계의 돈을 뒷받침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신뢰는 ‘성장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성장에 대한 신뢰’가 근대 이전엔 없었다가 근대에 갑자기 생겨나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 배경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중반에 등장합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재화를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으로 대체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근대에 이르러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겁니다. 시스템 내의 사람들은 ‘신용’이라는 특별한 돈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미래(정확히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됩니다.

글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명료하게 정리해줍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래로 가능해진 ‘성장에 대한 신뢰’는 ‘신용 거래’를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상 항목에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신용을 창조’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결과 항목에는 ‘경제 성장’이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성장이 신뢰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신용을 만들어냈다는 말을 보아, 이러한 ‘신뢰 - 신용 생성 - 성장’의 구조가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대 이전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 요소에 정리해둡시다. 신뢰와 신용 사이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니까요.

(다) - 허생이 변 씨에게 돈을 빌림/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줌

인물 - 허생, 변 씨

사건 - 허생이 변씨에게 돈을 빌림 or 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줌

관계

1. 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 -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서
2. 허생이 돈을 빌려 한 일 - 전국의 과일을 사재기

이 소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합니다. 허생이 돈이 없어 변 씨에게 돈을 빌려서, 전국의 과일을 사재기하고 통탄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인물과 사건, 그리고 그들의 관계로 정리를 합니다. 인물 항목에는 (다)에 등장하는 인물은 변 씨와 허생이 추가 되니, 이 둘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건은 ‘허생이 변 씨에게 돈을 빌렸다.’ 내지는 ‘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관계 항목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인물 개인이 사건을 겪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인물 간의 사이는 사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일이지요.

이 제시문에서는 ‘허생이 돈을 빌린 사건 이후에, 과일들을 사재기했다.’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생이 변 씨에게서 돈을 빌린 사건을 겪은 이후에 생겨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변 씨의 입장에서는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를 주변에 설명하는 것’이 관계가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자면,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혹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항목에 어

편 걸 정리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내용들을 전부 뽑아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 내용들을 뽑아내기만 했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글을 정리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1번 문항 풀이

<문제 1>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분석하고, 제시문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를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신용과 신뢰를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나누어 (가)와 (나) 비교
2. 하나 선택
3. 1, 2를 통해 제시문 (다)의 양면적 평가

	(가)	(나)
공통점	신용과 신뢰의 관계	
주장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신용	성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신용
신뢰의 형태	공통된 믿음(종교관)으로 형성되는 인간적 신뢰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
근대 이전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 거래가 일어나서 유럽의 경제 성장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신용 거래도 존재하지 않아서 경제 정체 + 순환
근대	자본주의적 믿음으로 인해 인간적 신뢰가 없는 신용 거래가 일어나서 성장률 저하, 경제 위기 초래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여 성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가 일어나서 경제 성장 + 순환

위에서 독해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표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시문에 나타난/제시문을 독해하여 정리해낸 내용만을 사용하면 위와 같은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목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자면,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신용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장은 다릅니다.

(가)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신용을 주장하지만, (나)는 성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신용을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신뢰의 형태도 제시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의 신뢰는 공통된 믿음으로 형성되는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라면, (나)의 신뢰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논제에서 근대와 근대 이전으로 나누어 비교하라고 하였으니, 각각의 항목을 근대 이전과 근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근대 이전의 (가)에서는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 덕분에 시장과 부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대 이전의 (나)에서는 성장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거래도 거의 없었고, 경제가 정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런 결과가 다시 신뢰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가)에서는 자본주의적 믿음(자본주의적 신뢰)이 도래하게 되어서 인간적 신뢰가 결여된 신용 거래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의 근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여 신용 거래가 일어나게 되었고, 경제 성장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 성장이 믿음을 확고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순환이 일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는 이 정도라면 충분하니, 이제 (다)를 평가할 차례입니다.

연세대학교 인문 논술의 평가 논제는 양면적인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제시해주는 것이지요. 또한, (가)를 선택하셔도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고, (나)를 선택하셔도 올바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기준 항목이 되는 제시문인 (가) 혹은 (나)와 평가 대상 항목이 되는 제시문인 (다)의 공통점을 이어주시면 되고, 부정적인 평가는 차이점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방법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 -> (다)의 답안과 (나) -> (다)의 답안을 모두 해설할 것입니다.

1. (가) -> (다) 평가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보면, 먼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신용 거래이며, 이러한 신용 거래는 변 씨가 허생을 인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 씨의 허생에 대한 신뢰는 다음 대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즉, 변 씨는 허생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허생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 (가)에서의 근대 이전에 일어난 경제 성장과 연결지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시문 (가)에서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 인간적인 신뢰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들 ‘공통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의 허생과 변 씨는 그렇다할 공통된 믿음도 없으며, 정말 처음 보는 뺨판 남에 불과합니다. 즉,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지탱해줄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허생은 사재기라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는 제시문 (가)의 다음 대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에 내재적으로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인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허생과 변 씨 사이에서 일어난 신용 거래는, 공통된 믿음처럼 신뢰를 지탱해줄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인간적 신뢰라는 것을 악용한 허생의 사재기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

2. (나) -> (다) 평가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다)를 본다면, 먼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 씨가 허생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신용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신용 거래는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신용 거래입니다. (다)의 다음 대목에서 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즉, 변 씨는 허생이 할 일이 큰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언급되는 성장에 대한 신뢰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변 씨와 허생의 신용 거래는 허생이 큰 돈을 벌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나)의 근대에서 신용 거래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계적인(은행이나 금융 기관같은) 시스템 하에서 미래에 대한 신뢰가 발생하고, 신용 거래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변 씨가 허생을 신뢰한 것에는 어떤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허생의 성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저 형색이나 관상(?)같은 것을 이용하여 허생을 신뢰하고 신용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합리적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생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전국의 과일들을 사들여 다시 파는 사재기를 일으킵니다. 이는 분명 비도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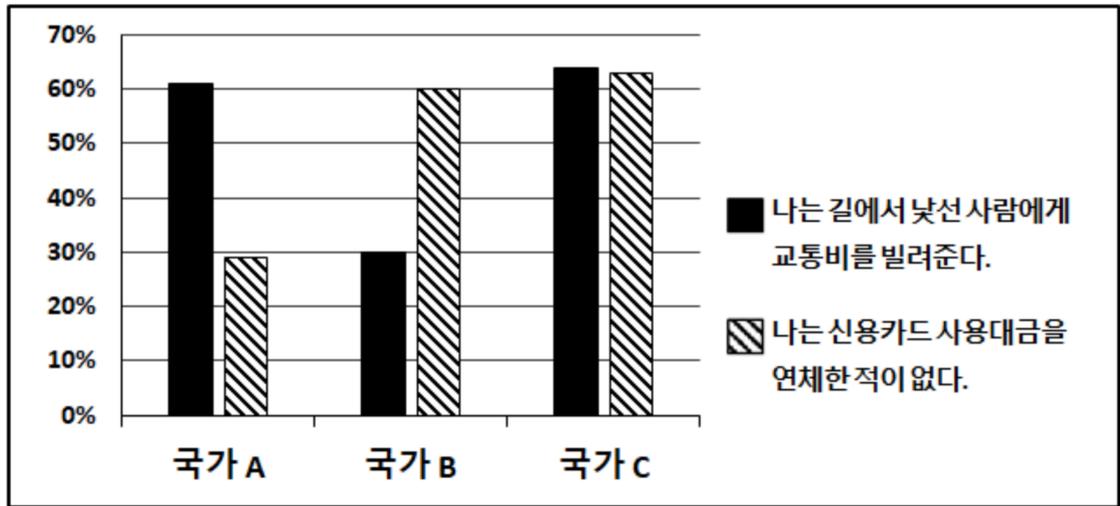
또한, 허생이 만들어 낸 성장(사재기를 통한 돈 벌이)이 다른 믿음을 만들어 낸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즉, ‘성장 - 신뢰’의 순환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분명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2번 문항 풀이

〈문제 2〉 제시문 (가)의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에 나타난 현상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가)에 나타난 근대와 근대 이전의 신용과 신뢰 관계를 사용하여 A, B, C의 양상 설명
2. 연간 경제 성장률 차이 설명

2번 문항을 살펴보기 전에, 제시문 (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A	국가 B	국가 C
연간 경제 성장률(%)	3.0	2.5	3.8

위 그래프를 보기 전에, (라)에 적힌 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가상의 국가 A, 국가 B, 국가 C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정도와 ‘신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다.”

즉, 저 그래프의 검은 막대와 빗금친 막대가 나타내는 것이 신뢰와 신용과 연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검은색 선을 ‘나는 길에서 낫선 사람에게 교통비를 빌려준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내용이 ‘신뢰와 신용’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로 살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신뢰와 신용의 관계’는 둘이 나옵니다. 근대 이전의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 근대의 ‘자본주의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간적 신뢰가 결여된 신용 거래’.

‘나는 길에서 낫선 사람에게 교통비를 빌려준다.’는 검은 막대는 근대 이전의 신뢰와 신용의 관계와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 반대로, ‘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다.’는 빗금친 막대는 근대의 신뢰와 신용의 관계와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A, B, C의 양상을 살펴봅시다.

국가 A는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본주의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 B는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낮지만, 자본주의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 C는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주의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연간 경제 성장률은 C가 제일 높고, B가 제일 작습니다.

$C > A > B$ 인 것이지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신뢰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모두 갖추고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 C의 경우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 이전부터 있던 인간적 신뢰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인간 관계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따라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습니다.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가 활발한 국가 A가 C의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신뢰에 대한 기반으로 신용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이 C보다는 낮습니다. 인간적인 신뢰에 내제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B가 가장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주의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 거래만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저하나, 경제 위기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비인간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중요한 일면을 하나 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신뢰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A가 B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